

# 여수광양항 배후 단지 확충...고부가항만 육성한다

### 전남도, 일반산단 세풍산단을 배후 단지 전환 '전국 최초' 2025년까지 북측 배후단지 10만7000㎡ 추가 확보 등

전남도가 여수광양항의 배후단지 확충 및 자족형 항만물동량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일반산단을 항만 배후단지로 전환하는 등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육성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31일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광양항 배후단지의 임대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풍 일반산단지를 항만 배후단지로 전환하고 북측 항만 배후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 배후단지 개발 및 항만재개발은 5년 이상이 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4월 말 현재까지 광양항의 경우 195만㎡ 면적의 동측 배후단지에 33개 기업, 194만㎡ 면적의 서측 배후단지에 22개 기업이 입주했다. 올해 안에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돼 배후단지 확대 지장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해양수산부,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세풍 일반산단단지 1단계 부지 중 33만㎡를 매입한 후 항만

배후단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일반산단을 항만 배후단지로 전환하는 적극 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항만 배후단지 편입 예정 부지는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가 육상항만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지난 5월 6일 전남도,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단개발(주)이 광양항 배후단지 확대 협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262억원을 들여 북측 배후단지 10만7000㎡를 추가로 확보하고, 울촌 2산단과 울촌융복합물류단지를 조기에 조성하는 등 항만 배후단지를 계속 늘릴 계획이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항만 배후단지에서 자체 물동량을 창출토록 함으로써 광양항 활성화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며 "우수한 제조기업도 적극 유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여수광양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발대식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봉사자들이 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전남 행정통합 연구용역비 이번에도 삭감되나

### 전남도의회 오늘 정례회, 2억 처리 주목... '전액 삭감' 배제 못해 전경선 등 서부권 의원 "공감대 없이 급하게 추진할 필요 없다"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연구용역비를 놓고 도의원 일부가 '전액 삭감'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우려를 표시하면서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3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경선(더불어민주당·목포5) 전남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은 절대 안 된다"며 통합 논의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도의회 운영위원장이자 담당 상임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인 전 의원은 1일 시작되는 도의회 정례회에 접수된 추경안에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연구용역 예산이 포함될 데 대해 이 같은 태도를 보였다.

전 위원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순서가 잘못됐다"며 "의견수렴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왜 이렇게도 인색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블랙홀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자체 간의 연합과 연대는 필요하고 찬성하나, 여전히 그 문제를 푸는 데 가장 중요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3월 광주시의 공화 이전 논의 중단 유감 표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연구용역비를 재조정할 것은 현직 단체장들의 조급증이 아닌가 싶다"며 "시·도 통합과 군공화 이전 문제는 분명히 다른 별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 의지와 합의보다 더 중요하게 지역민들의 참여이고 그것이야말로 미래 광주·전남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담아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 위원장은 "추경에 포함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연구용역비에 대해 꼼꼼히 질의할 생각"이라며 "경우에 따라선 기행위 심의에서 사법비 전액 삭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연구용역비 2억원의 지난해 말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한 광주시의 약속 파기에 대한 반발로 전남도의회가 전액 삭감했으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다시 상생 무드를 타자 전남도가 관련 용역을 추경안에 반영한 것이다. 전남도 자체행정국 추경안에 포함된 시도 행정통합 연구용역비는 오는 4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전남 서부권 다른 도의원 일부도 전 의원과 같은 입장을 보여 행정통합 연구용역비가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의회는 1일부터 16일까지 제353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도청과 도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접수 15일까지

전남도내 여성 농어업인의 문화·복지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참가자를 오는 15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대상자는 지난 2월 운영했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자격 요건

에 변경이 생겨 지원 대상자 자격을 얻은 여성농어업인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전남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만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

업자 등록자 ▲상근 직원으로 채용돼 월정급여액을 받는 전업 직업인 ▲농어업인의 자녀로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문화누리 바우처 카드 중복 수혜자 ▲사업 시행 전년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어업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1인당 2만원을 본인 부담하면 20만원 권의 기프트카드를 발급받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공공기관 채용 시험 오류...합격자 번복

### 한국사 70번 모두 정답 처리...1명 불합격 통보

광주시 공공기관 통합 채용 필기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뒤늦게 확인돼 애초 합격했던 응시자가 불합격으로 정정됐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필기시험 문제 중 광주환경공단 기계 일반직 한국사 70번에 대해 지원자 중 1명이 오류를 지적했다. 확인 결과 "옳지 않은 것"을 물어야 했지만, 문항에서는 "옳은 것"을 고르도록 했다. 광주시는 애초 선발 예정 인원(8명)의 1.5배(12명)를 1차 합격자로 선정하기로 하고 동점자 1명을 포함해 13명을 합격 통보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하면서 1명은 탈락하게 돼 지난 28일

정정 공고를 냈다.

광주시와 시험 대행 기관은 해당 응시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부교수 이상, 20년 이상 교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출제위원 자격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시험 대행 기관에서 2차례만 검수했지만, 시에서도 인력을 확보해 추가로 1차례 더 검수하기로 했다. 14개 기관, 87명을 선발하는 상반기 통합 필기시험에는 지난 8일 2565명이 응시해 2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환경공단 기계 일반직에는 8명 선발에 85명이 응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규제 입증 책임제 도입...광역단체 4번째

### 공급자 관점서 수요자 중심 전환

광주시는 "규제 개선 방식을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규제 입증 책임제를 도입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규제 입증 책임제는 시민이나 기업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규칙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기능과 권한

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규제 심사 기능을 확대하고 신설 규제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강화했다.

문영훈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규제입증 책임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전북(2019년 11월), 경남(2020년 9월), 충북(2020년 10월) 등 3곳에 이어 광주가 4번째다. /박진표 기자 lucky@



##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신축 착공기념

# 경품 대전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정기예금(100억한도)

12개월 **1.85%**  
18개월 **1.95%**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2020년 출자금

**3.0%** 배당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총장지점 223-7217**